

1: 왜 지금, 하카타 한큐에서 이 주제를 시작하게 되었나요?

2015년, 저는 후쿠오카 최초의 아트페어인 AFAP을 시작하면서, 세계가 말하는 “ART”와 일본에서 오랫동안 익숙하게 사용되어 온 “아트(アート)” 사이에 큰 간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하게 깨달았습니다.

일본에서 “아트”라고 불려온 많은 것들은 오랫동안 삶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장식’으로 소비되어 왔습니다. 물론 그것 자체도 매우 풍요롭고 가치 있는 문화입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이야기되는 “ART”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ART”에는 작가의 사상과 시대성, 역사성, 비평성이 존재하며, 시장 안에서 그 가치가 검증되고 공유되면서 문화 자산으로 성장해 갑니다.

저는 그 현장을 직접 보며 이런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작품의 가치는 누가 결정하는가?”

“왜 세계에서는 ART가 사회적 가치로 성립하는가?”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나 투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왜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ART에 열광하고, 인생을 걸고, 그 가치를 믿으며 계속 관계를 맺는지 – 그 ‘진짜 재미’에 닿는 입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일본은 건강하고 성숙한 ART마켓이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카타 한큐라는 공공성이 높은 장소에서, 다시 한번 “ART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토론하며, 가치관을 새롭게 갱신하는 계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번 전시가 그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